



상태로서의 진지한 여가 수준 탐색

김미량¹

¹순천향대학교

Investigation the level of Serious Leisure as a State

Kim, Mi-Lyang¹

¹Soonchunhy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serious leisure as a state. For this purpose, the literature on serious leisure state and levels was extensively reviewed to define the level of serious leisure state. For the study, 471 participants in amateur tournaments such as baseball, tennis, basketball, squash, soccer and golf were analyzed. Statistical analysis utilizes SPSS 25.0 and AMOS 25.0,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serious leisure means status and a low score of serious leisure does not mean casual leisure. Therefore, when using a serious leisure measure, the survey should be conducted on serious leisure participants. Second, the serious state of leisure participation can be divided into core devotee, moderate devotee and participant, which means that serious leisure is low, medium and high. This state can be measured by a serious leisure measure.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sub factories vary depending on the state of serious leisure. In particular, participants felt that they were making more personal efforts than key and appropriate devotees, while those who were committed felt that there were more durable benefits through serious leisure participation.

Key words : casual leisure, serious leisure, serious leisure level, serious leisure as a state

주요어 : 일상적 여가, 진지한 여가, 진지한 여가 수준, 상태로서의 진지한 여가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6850).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Mi-Lyang

Soonchunhyang University, 22 Soonchunhyang-ro, Shinchang-myeon, Asan-si, Chungcheongnam-do, Korea

Tel: +82-41-530-1292, Fax: +82-41-530-1297, E-mail: mlkim@sch.ac.kr

Received: April, 30, 2019 Revised: May, 31, 2019 Accepted: June, 22, 2019

I. 서론

이 연구는 상태로써 진지한 여가의 수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탐색하는 연구이다. 여가의 의미가 다양한 활동유형과 인구사회학적 변인뿐만 아니라 태도(attitude), 동기(motivation), 만족(satisfaction)등과 같은 개인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포함하게 되면서 여가를 주관적인 관점으로 정의하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Csikszentmihalyi, 1975; Dumazedier, 1974; Kelly, 1996). 특히 Stebbins(1982a)는 여가 참여가 개인의 표현, 자아실현, 정체성 향상, 자기만족과 같은 다양한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이러한 성취는 여가활동에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 개념을 제안하고 후속 연구를 통해 진지한 여가의 여섯 가지 특성과 다양한 혜택을 밝혔다.

진지한 여가는 ‘아마추어나 취미가,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해당 여가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활동의 가치와 흥미를 발견하여 관련 전문기술과 지식 그리고 경험을 쌓고 표현하는데 집중하여 경력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진지한 여가 참여를 통해 다양한 개인적 보상과 사회적 보상이 주어지는 활동이다(Stebbins, 1982b, 1992a, 1992b, 2001). 이제까지 밝혀진 진지한 여가 참여자의 공통적인 6가지 특징은 활동에 대한 노력(need to persevere at the activity), 유용한 여가 경력(availability of a leisure career), 지식과 기술을 얻으려는 노력(need to put in effort to gain skill and knowledge), 다양하고 특별한 혜택(realization of various special benefits), 독특한 신념과 사회세계(unique ethos and social world), 그리고 개인적 및 사회적인 정체성(an attractive personal and social identity)등이 보고되었다. (<http://www.seriousleisure.net/concepts.html>).

진지한 여가의 개념이 소개되면서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최근에는 진지한

여가 척도가 개발(김미량, 2009, 2015, Gould, Moore, McGuire, & Stebbins, 2008)되어 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척도 개발은 진지한 여가 참여자의 참여정도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여가행동을 설명하는 다른 변인과의 관계연구를 가능하게 했다. 이에 대해 오세숙, 손영미, 그리고 오경아(2012)는 진지한 여가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연구에서 10여년에 걸쳐 진지한 여가 연구가 빠른 속도로 발달하였는데 2000년부터 2003년은 제 1시기로 용어가 혼용된 초기연구 단계, 제 2시기는 2004년부터 2007년으로 진지한 여가로 용어가 통일되고 진지한 여가활동의 특성을 탐구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제 3기는 2008년부터 2011년으로 진지한 여가 척도가 개발되면서 연구의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분류한 바 있다.

진지한 여가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진지한 여가의 측정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즉, 진지한 여가의 측정된 점수가 낮을 경우 ‘진지함(seriousness)’가 낮은 것인가? 아니면 진지한 여가 참여자가 아닌 즉, 여가참여에 진지하지 않은 것인가(김매이, 2015)?, 혹은 진지한 여가 점수가 낮다는 것은 일상적여가(casual leisure)를 의미하는 것인가(Shwn & Yarnal, 2010)?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 이러한 논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진지한 여가가 여가활동의 종류나 발전되어가는 연속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라는 관점 때문이었다. 즉 진지한 여가는 여가참여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 이상이 되면 진지한 여가 상태이며 따라서 점수의 높고 낮음을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 때문에 진지한 여가의 측정치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Shen과 Yarnal(2010)은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가 반대의 개념인 것처럼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는 이분법적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연속체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진지한 여가 척도를 활용하여 도출된 낮은 점수는 일상적 여가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Stebbins(2013)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는 반대의 개념도 연속적인 개념도 아니며 진지한 여가는 사람들의 여가 발달 과정이 아니라 현재의 여가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설명함으로써 진지한 여가는 ‘상태’로서의 여가참여 개념임을 분명했다. 즉, 진지한 여가는 여가참여 상태이기 때문에 일상적 여가와와는 다르며 따라서 진지한 여가 척도에서 측정된 낮은 점수가 일상적 여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지한 여가 개념에 대한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중 하나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Bryan, 1977)’와 진지한 여가가 비슷한 개념이며 진지한 여가는 상태적 개념이므로 측정할 수 없고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렇듯 진지한 여가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 팽배한 가운데 진지한 여가 척도는 연구에서 계속 활용되고 있어 상태로써 진지한 여가의 수준을 탐색하고 규정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태로써 진지한 여가를 수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태의 수준별로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를 문헌고찰을 통해 탐색하는데 연구의 주요 목적이 있다. 또한 탐색된 기준의 실용적 분석을 위해 여가 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지한 여가 척도를 활용하여 수준을 분석하고 상태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상태로써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는 연속적인 개념인가.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유사한 개념인가. 둘째, 상태로써 진지한 여가의 수준을 구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구분된 수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셋째,

진지한 여가로써 여가스포츠 참여자는 진지한 여가의 상태에 따라 수준별로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확인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진지한 여가에 대한 질적 연구나 혹은 진지한 여가 척도를 활용한 연구에서 상태로써 진지한 여가의 수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상태로써 진지한 여가의 수준을 규명하는 연구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고찰과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 진지한 여가의 수준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진지한 여가 척도를 활용하여 여가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분석을 통해 진지한 여가의 상태별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고찰

이 연구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문헌고찰방식은 체계적 문헌고찰로써 상태로써 진지한 여가의 수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진지한 여가의 상태의 수준의 분류와 분류된 각 수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광범위하게 문헌탐색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Stebbins가 진지한 여가의 개념을 제안했던 시점부터 현재까지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진지한 여가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들을 고찰하여 통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한국학술정보(kstudy.com)에서 ‘진지한 여가’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117개의 연구가 도출되었다. 그 중 진지한 여가의

특성이나 진지한 여가으로써 활동규명 연구 등을 제외하고 진지한 여가 수준에 대한 연구 및 진지한 여가 척도를 활용한 총 23개의 논문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해외 문헌은 Stebbins의 진지한 여가 관련 연구들과 서적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정하고 추가로 구글 학술검색에서 ‘serious leisure’로 검색된 연구들 중 진지한 여가의 수준에 대한 연구 총 16개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논문의 선택은 진지한 여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 여가학 교수 2명과 여가학 전공 박사 3명이 평가에 참여하였다.

2. 조사연구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진지한 여가으로써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다 명확하게 진지한 여가활동 참여자를 선택하기 위해 여가스포츠 참여자 중 아마추어 대회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조사연구의 표집방법은 편의 표본 추출법 (convenience sampling method)이다. 연구를 위해 진지한 여가의 아마추어와 취미생활자의 형태에 속하는 여가 스포츠 활동(야구, 테니스, 농구, 스쿼시, 축구, 골프, 수영, 마라톤)참여자중 아마추어 대회 참가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5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최종적으로 500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답변 등을 제외한 471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83.8퍼센트로 여성에 비해 비율이 높았고 연령은 20-30대가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학졸업이 가장 많았다. 진지한 여가활동으로 여가스포츠는 수집된 모든 종목에서 비교적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요인	구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자	394	83.8
	여자	76	16.2
연령	20대	164	34.4
	30대	151	31.7
	40대	120	25.2
	50대 이상	42	8.8
	200만 원 이하	140	29.7
월소득	201-300만 원 이하	146	31.0
	301-400만 원 이하	110	24.4
	401만 원 이상	75	14.9
학력	고졸	2	0.4
	대학재학	72	15.3
	대학졸	215	45.7
	대학원졸 이상	180	38.5
진지한여가 활동	농구	56	11.9
	마라톤	41	8.7
	배드민턴	60	12.7
	수영	61	19.9
	스쿼시	70	14.9
	야구	58	12.3
	축구	61	13.0
테니스	64	13.6	
총계		471	100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5문항(성별, 연령, 월 소득, 참여 여가활동, 학력)과 김미량 (2009, 2015)이 개발하고 재정립한 진지한 여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지한 여가 척도는 인내(perseverance), 여가경력(leisure career), 개인적 노력(personal effort), 지속적 혜택(durable benefits), 여가정체성(leisure identity), 독특한 기풍(unique ethos)등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인 당 4문항씩 총 24문항이다. 설문지의 답변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조적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진지한 여가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는 CFI=.915, TLI=.905, RMSEA=.064로 모두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인내 .769, 개인적 노력 .794, 여가경력 .810, 지속적 혜택 .732, 여가정체성 .690, 독특한 기풍 .713으로 나타나 통계분석을 적용하기에 신뢰도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진지한 여가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	df	χ^2/df	CFI	TLI	RMSEA
진지한 여가	581.679	362	1.607	.915	.905	.064
기준			≤ 5	$\geq .90$	$\geq .90$	$\leq .08$
판정			양호	양호	양호	양호

표 3. 진지한 여가 척도의 신뢰도 분석결과

	하위요인	신뢰도계수
진지한 여가	인내	.769
	개인적 노력	.794
	여가경력	.810
	지속적 혜택	.732
	여가 정체성	.690
	독특한 기풍	.713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고 SPSS 25.0과 AMOS 25.0을 활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분석하였다. 먼저 자료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을 실시하고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인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하였다.

진지한 여가 수준을 분류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활용하였다. 군집분석은 각 요인들의 특성을 토대로 유사한 대상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주는 다변량 통계기법이다. 군집분석은 각 요인의 구조를 평가하는 기법으로 요인분석과 비슷하지만 요인분석은 변수들을 그룹핑하는 데 비해 군집분석은 대상들을 그룹핑한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이학식, 임지훈, 2017). 본 연구에서 군집 수는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의 평균기준(average linkage)에 의한 덴드로그램(dendrogram)결과와 가까운 대상끼리 순차적으로 묶어나가는 AHM(aggglomerative hierarchical method)를 확인하

고 문헌고찰의 결과를 토대로 3개의 군집수로 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K-평균 군집분석(k-mean cluster analysis)을 활용하여 진지한 여가의 수준을 분류하고 특성을 확인하였다(Hair & Black, 2000).

III. 연구결과

1. 상태로써 진지한 여가의 수준 탐색

진지한 여가가 현대인들의 여가참여 형태와 특성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국내외에서 진지한 여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체육학의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진지한 여가에 대한 초기연구에서는 주로 어떤 종류의 여가활동이 진지한 여가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 졌다(강효민, 2000, 박수정, 2004, 이연주, 2005, Arai & Pedlar, 1997, Baldwin & Norris, 1999, Yoder, 1997). 이러한 연구들은 진지한 여가의 특성과 보상을 구체화하고 어떤 활용이 진지한 여가에 속하는지를 밝히는데 주로 기여했는데 이러한 흐름은 200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진지한 여가척도가 개발되면서 양적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현재 국내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진지한 여가 척도는 Gould, Moore, McGuire, & Stebbins(2008)가 개발한 SLIM(serious leisure inventory and measure)과 김미량(2009, 2015)의 SLS(serious leisure scale)등이 있다. 이 두 척도는 Stebbins의 진지한 여가관련 정보와 연구를 소개하는 웹페이지(<https://www.seriousleisure.net/>)에 등록되면서 전 세계에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진지한 여가 척도 개발은 진지한 여가 참여자의 참여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여가행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변인과 관계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반면, 진지한 여가 척도개발은 상태로써 진지한 여가의 개념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향후 연구를 위해 상태로써 진지한 여가의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Stebbins(1997)는 연구 초기에 모든 여가는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로 설명되는데 진지한 여가는 덜 본질적이고 여가경력을 제공해 주지 않는 '일상적'여가 또는 '진지하지 않은'여가와 전형적으로 대비된다고 함으로써 진지한 여가가 일상적 여가와 다른 '상태'의 개념임을 주지한 바 있다. 그러나 후속연구를 통해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가 모든 여가의 상태를 설명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또 다른 여가참여 형태로 '프로젝트형 여가(project-based leisure)'의 개념을 제안하고 2007년에는 '혼합형 진지한 여가(mixed serious leisure)'의 개념을 제안했다. 여기에서 '혼합형 진지한 여가'는 일상적 여가에 비해 덜 일반적이고 단기간이면서 적당히 복잡하고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기술과 지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진지한 여가는 아닌 여가의 형태라고 정의함으로써 제안한 모든 여가를 '상태' 및 '형태'의 개념으로 제안하고 했다(Stebbins, 2015). 이렇듯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가 반대의 개념이 아님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Stebbins가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가 반대의 개념처럼 정의했던 것 때문에 현재까지도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가 반대의 개념이나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척도개발을 통해 진지한 여가를 점수화하게 되면서 측정된 '진지함(seriousness)'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매이(2015)는 2000년대 이후 국내외에서 진지한 여가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활동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진지한 여가가 '상태'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여가 척도가 개발되면서 '얼마큼 진지한가'에 대한 연구로 이해되어 온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기존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이 모두 진지한 여가 상태인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척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측정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Shen & Yaral(2010)은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가 개인의 여가경험을 이분법적 반대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두 가지 형태의 여가참여에 대해 연속적인 개념(continuum)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tebbins(2007, 2015)는 여가참여의 형태가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성 여가(project-based leisure)의 형태도 있음을 제안하면서 일상적 여가가 진지한 여가의 반대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연구에서 자원봉사자를 경력 자원봉사(career volunteering)와 일상적 자원봉사(casual volunteering)의 두 가지 참여 형태를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일상적 여가가 진지한 여가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는 참여자의 특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하며 따라서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는 연속적인 개념이 아님을 강조했다.

Stebbins가 설명한 바와 같이 진지한 여가는 여가활동의 참여 상태를 의미하며 여섯 가지의 특성에 대해 어느 정도 높은 혹은 적절한 수준을 나타낼 때 진지한 여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일상적 여가는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 어떤 훈련도 받을 필요가 없고 직접적이고 내재적인 보상이 따르는 상대적으로 짧고 즐거운 핵심활동'이기 때문에 진지한 여가 활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진지한 여가의 수준이 낮다고 해서 일상적 여가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일상적 여가는 진지

한 여가로 발전되기는 거의 어렵다.

Stebbins(1992a)는 진지한 여가에서 얻어지는 혜택으로 개인적 보상(자아실현, 자아표현, 자아개념, 지적자원, 자아충족, 재창조 등)과 사회적 보상(사회적 매력, 집단성취 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혜택은 평범하거나 열성적이지 않은 활동인 일상적 여가에서는 얻어질 수 없으며 열성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은 다른 여가형태에서는 얻을 수 없고 진지한 여가 상태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Stebbins, 2015)함으로써 모든 여가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따라서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는 반대의 개념도 연속적인 상태도 아니다.

한편, 진지한 여가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recreation specialization)와 비교하는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 이유는 두 가지 개념이 현대인의 여가형태를 설명하는데 적합하고 두 가지 개념이 비슷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참가자들의 행위(behavior), 지식과 기술(skill & knowledge) 등의 차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전(progression)되어 가는 발전적 과정(developmental process)으로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에 이르는 과정으로 정의된다(Bryan, 1977). Scott(2012)는 진지한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두 개념의 유사함을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두 개념의 관계에 대한 관련연구가 수행되었는데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진지한 여가 척도를 활용하여 진지한 여가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와의 인과관계를 규명(김형훈, 김종길, 김순희, 2013, 황선환, 이문진, 2009)했고 두 변인의 연관성을 밝혔다. 이에 대해 Stebbins(2015)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진지한 여가의 틀에 부합하며 따라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진지한 여가를 설명하는 한 가지 요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진지한 여가를 애

호가(dabbler), 추종자(devotee)등 다양한 상태의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진지한 여가는 상태의 개념이고 일상적 여가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등 다른 여가형태와 연속적인 개념이나 유사한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진지한 여가 척도는 진지한 여가 활동 참여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진지한 여가 참여자는 진지한 여가의 세 가지 형태인 아마추어, 취미활동가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형태로 자신들의 여가활동을 체계적으로 추구하고 그 속에서 본질과 재미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는 상태의 참여자이다.

진지한 여가의 척도가 진지한 여가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면, 진지한 여가 척도 측정값의 높고 낮음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에 대해 Stebbins(2015)는 진지한 여가의 특성 중 경력(career)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의 여가활동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진지한 여가 참여자는 초심, 발전, 수립, 유지, 쇠퇴 등 다섯 단계의 경력단계를 거치며 이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를 진지한 여가의 단계로 이해하기에는 진지한 여가의 6가지 특성 중 여가경력의 한 가지의 특성에 해당한다는 한계가 있다.

진지한 여가 상태를 수준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Stebbins(2014, 2015)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관련 연구와 비판적인 연구의 검토를 통해 완성한 진지한 여가 조망 관여 척도(serious leisure perspective involvement scale)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Stebbins가 Siegenthaler와 O'Dell(2008)의 노년기 골프 참여자와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초보자(neophyte), 참여자(participant), 적절한 헌신자(moderate devotee), 핵심 헌신자(core devotee) 및 헌신적인 직업인(devotee worker)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설명하는 척도이다. Stebbins는 척도에서 제안한 다섯 가지의 참여 상태 중 진지한 여가는 참여자, 적절한 헌신자 그리고 핵심 헌신자의 단계

(<https://www.seriousleisure.net/slp-diagrams.html>)에 속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Stebbins(2015)는 어떤 여가활동에 진지한 여가 상태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참여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적절한 헌신자 그리고 핵심 헌신자가 가장 적다고 설명했다. 즉, 가장 높은 수준의 진지한 여가 참여 상태인 핵심 헌신자는 가장 적은 숫자를 나타내며 진지한 여가의 낮은 상태인 참여자에서 핵심 헌신자로 수준을 높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해보면, 진지한 여가는 일상적 여가와 연속적이지 않으며 여가 참여의 다른 상태이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진지한 여가의 여섯 가지 특성 중 하나인 여가경력과 관련이 있으며 진지한 여가와 유사한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진지한 여가는 진지함(seriousness)의 상태에 따라 참여자(participant), 적절한 헌신자(moderate devotee) 그리고 핵심 헌신자(core devotee)로 구분할 수 있다.

2. 진지한 여가로서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상태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결과에 따라 진지한 여가의 상태를 참여자(participant), 적절한 헌신자(moderate devotee), 핵심 헌신자(core devotee)로 규정하고 실증연구를 위해 여가스포츠 참여자에게 진지한 여가를 측정하여 집단별 특성을 확인하였다.

문헌고찰과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해 진지한 여가의 상태를 k-평균 군집분석(k-mean cluster analysis)을 적용하여 3개의 집단으로 분류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진지한 여가로서 여가스포츠 참여자는 진지함의 상태에 따라 ‘핵심 헌신자’, ‘적절한 헌신자’ 그리고 ‘참여자’의 세 그룹으로 분류되었고 모든 하위요인의 평균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핵심 헌신자’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적절한 헌신자’는 세

표 4. 진지한 여가의 전체 군집분석 결과

	진지한 여가 상태			F
	핵심 헌신자	적절한 헌신자	참여자	
인내	5.92	4.90	3.33	247.43***
여가경력	5.86	4.66	2.78	351.78***
개인적노력	5.82	4.58	2.94	280.77***
지속적혜택	5.90	4.79	2.90	385.16***
여가정체성	5.39	4.30	2.57	298.27***
독특한기풍	6.03	5.03	3.42	362.65***
N	248	203	20	

*** $p < .01$

집단 중 중간값을 보였으며 ‘참여자’의 경우 모든 하위요인에서 낮은 평균을 보였다. 세 집단으로 분류된 최종 연구대상은 ‘핵심 헌신자’가 248명, ‘적절한 헌신자’는 203명, 그리고 ‘참여자’는 20명이었다.

집단별로 하위요인 점수를 보면 핵심 헌신자와 적절한 헌신자의 경우 독특한 기풍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인내 그리고 지속적 혜택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자는 독특한 기풍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인내 그리고 개인적 노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는 상태로써 진지한 여가의 수준을 탐색하는 연구로 진지한 여가의 상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초기에 이루어진 진지한 여가 연구는 진지한 여가의 자체의 특성을 밝히고 어떤 여가활동이 진지한 여가의 특성을 보이는지를 검증하려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Apostle, 1992, Hamilton-Smith, 1993, Hastings, Kurth, & Schloder, 1995, Yair, 1990). 그러나 진지한 여가 척도 개발된 이후 진지한 여가 척도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진지한 여가 척도를 활용한 연구는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삶의 질 등 관련 변인에 대한 관계 연구와 진지한 여

가 수준에 따른 여가관련 변인들의 차이연구가 시도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는 측정된 진지한 여가 수준이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으로 연결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그런데, 진지한 여가의 수준을 측정하게 되면서 다양한 비판과 개념에 대한 혼란이 있어왔다. 비판과 혼란의 첫 번째 원인은 Stebbins가 진지한 여가를 상태의 개념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진지한 여가의 높고 낮음을 측정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리고 진지한 여가의 용어가 출현한 이후 일상적 여가가 등장했는데 초기에 마치 일상적 여가가 진지한 여가의 반대되는 용어로 받아들여지면서 이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었다.

Stebbins가 진지한 여가 조망을 통해 프로젝트성 여가, 혼합형 여가 등 다른 여가형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일상적 여가가 진지한 여가의 반대개념이 아님을 분명히 했음에도 진지한 여가의 개념에 대한 오해와 비판은 없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오해는 진지한 여가의 척도가 개발되면서 측정된 진지한 여가의 낮은 점수가 일상적 여가를 의미하며 따라서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가 연속적인 개념이라는 주장까지 나타나게 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진지한 여가는 상태의 개념이며 진지한 여가의 낮은 수준이 일상적 여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는 참여특성 자체가 다르고 일상적 여가는 진지한 여가로 발전되기 어렵기 때문에 진지한 여가의 낮은 수준이 일상적 여가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진지한 여가 척도를 적용할 때도 대상이 진지한 여가 참여자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조사를 이전에 연구 대상이 진지한 여가 참여자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지한 여가 척도의 측정치는 진지한 여가의 상태 즉, 진지함(seriousness)이 낮은 상태인가 높은 상태인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측정된 진지한 여가의 수준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에 대한 측면

은 Stebbins가 SLP Involvement Scale(2015)에서 제안한 진지한 여가 상태의 3가지 수준인 참여자(participant), 적절한 헌신자(moderate devotee), 핵심 헌신자(core devotee)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러한 진지한 여가 상태 구분이 항상 똑같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연구에서 진지한 여가 척도를 활용할 때 연구의 대상이 진지한 여가의 어떤 상태수준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김미량과 황선환(2015)연구에서는 스포츠이벤트 자원봉사자를 진지한 여가의 수준에 따라 2개의 그룹으로 분류했는데 리커트 7점 척도를 기준으로 높은 그룹에서는 6개의 하위요인의 점수가 6.17-6.58점이었고 낮은 그룹에서는 5.05-5.78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진지한 여가의 수준별로 2개의 군집으로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집단의 점수도 매우 낮은 수준은 아니었는데 이는 연구의 대상이 전반적으로 진지한 여가의 매우 높은 상태이며 따라서 '적절한 헌신자'와 '핵심 헌신자'가 대부분이고 '참여자'는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인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김미량, 이영한, 2012)에서는 진지한 여가 수준이 높은 집단이 6.02-6.63점이고 낮은 집단은 3.45-4.98이 나타났다. 이 연구도 역시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라 두 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핵심헌신자'와 '참여자'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 결과로 진지한 여가로써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지한 여가 상태에 따라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분석 하고 집단의 특성을 확인한 결과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진지한 여가 수준이 가장 높은 '핵심 헌신자'는 하위요인에서 6.03-5.39의 값을 나타냈고 모든 하위요인 점수가 두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적절한 헌신자'는 5.03-4.30, '참여자'

의 경우 3.42-2.57의 값을 나타냈다. ‘핵심 헌신자’와 ‘적절한 헌신자’ 집단의 경우 ‘독특한 기풍’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인내’, ‘지속적 혜택’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참여자’의 경우 ‘독특한 기풍’, ‘인내’ 그리고 ‘개인적 노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지한 여가로서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자는 같은 활동을 하는 여가참여자 사이에 공유된 그들만의 태도, 관습, 가치, 신념, 목표 등에서 나타나는 공동체 정신인 ‘독특한 기풍’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며 두 번째로는 여가활동 참여자가 활동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관, 위협에 직면하는 경우, 당황스러움, 곤란한 상황, 긴장감 혹은 거북스러운 일을 하는 것 등을 인내하여 끝까지 활동에 참여하는 ‘인내’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핵심 헌신자’와 ‘적절한 헌신자’의 경우 진지한 여가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지속적인 혜택’을 높은 수준으로 인지하는 반면, ‘참여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혜택’보다는 여가활동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등의 전문성과 경력을 쌓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수준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지한 여가의 형태인 ‘참여자’와 ‘헌신자’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한편, Stebbins는 상태로써 진지한 여가의 수준에 따른 세 가지 상태에 대해 ‘참여자’가 가장 많고 ‘적절한 헌신자’ 그리고 ‘핵심 헌신자’의 순으로 숫자가 적어진다고 설명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핵심 헌신자’가 가장 많았고 ‘적절한 헌신자’, ‘참여자’의 순으로 분류된 집단의 대상자가 적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보다 확실한 진지한 여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야구, 테니스, 농구, 스쿼시, 축구, 골프 등 스포츠 종목의 아마추어 대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마추어 대회에 참여할 정도의 기

량과 정보를 가진 참여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대상이 높은 수준의 진지한 여가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핵심 헌신자’가 가장 많은 대상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태의 진지한 여가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 할 필요가 있겠다. 진지한 여가의 수준은 어떤 여가활동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하위변인의 점수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여가 활동 그리고 다양한 진지한 여가 상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진지한 여가의 상태별 특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후속연구에서 진지한 여가 참여자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지한 여가 척도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진지한 여가 참여자 상태를 따라 분류하고 진지한 여가 상태에 따른 집단의 특성을 밝힐 수 있게 됨으로써 진지한 여가 참여자를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를 통해 탐색된 진지한 여가 상태수준의 기준정립은 후속연구에서 진지한 여가 참가자들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진지한 여가 상태에 따라 ‘어떻게 참여지속을 유도할 것인가’, ‘높은 수준의 진지한 여가 상태로 가게 하는 촉진요인은 무엇인가’ 혹은 ‘높은 수준의 진지한 여가 상태로 이행하는데 여가계약은 무엇인가’ 등 다양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여 현대 여가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밝혀진 진지한 여가 측정치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 진지한 여가 상태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진지한 여가의 척도개발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양적연구에 대해 진지한 여가 상태수준에 대한 이론적 토대

를 마련하여 보다 명확하고 논리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상태로써 진지한 여가의 수준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진지한 여가 상태와 수준에 대한 문헌을 광범위하게 고찰하여 상태로써 진지한 여가의 의미를 탐색하고 진지한 여가의 수준을 분류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야구, 테니스, 농구, 스쿼시, 축구, 골프 등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분석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진지한 여가는 상태를 의미하며 진지한 여가의 낮은 점수가 일상적 여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진지한 여가 척도를 사용할 때 진지한 여가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진지한 여가와 유사한 개념이 아니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진지한 여가의 여섯 가지 특성 중 여가경력과 관련이 있다.

셋째, 진지한 여가 참여 상태는 핵심 헌신자, 적절한 헌신자, 참여자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진지한 여가의 낮은 상태와 중간 상태 그리고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넷째, 높은 수준의 진지한 여가로써 스포츠 활동 참여자는 진지한 여가의 상태 수준에 따라 하위요인의 특성이 다른데 특히 가장 낮은 상태인 참여자의 경우 핵심 헌신자와 적절한 헌신자에 비해 개인적인 노력을 더 하고 있다고 느끼는 반면 헌신자의 경우 진지한 여가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혜택이 더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강효민(2000). '전문형 여가'로서 마스터즈 수영클럽 참가자의 전문성 경험과 참가이유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3(1), 1-12.
- 김미량(2009). 진지한 여가 척도개발. *한국체육학회지*, 48(4), 397-408.
- 김미량(2015). 진지한 여가 척도의 재정립. *한국체육학회지*, 54(2), 313-322.
- 김미량, 이영한(2013). 여성노인의 스포츠이벤트 자원봉사 행동모형 검증. *체육하고학연구*, 24(1), 36-46.
- 김미량, 황선환(2015). 인문,사회과학편 : 스포츠이벤트 자원봉사자의 진지한여가 수준에 따른 편익과 만족. *한국체육학회지*, 54(4), 493-502.
- 김매이(2016). 진지한 여가.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학술대회 발표자료.
- 김형훈, 김종길, 김순희(2013). 진지한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관계: 사회인야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2(3), 379-388.
- 박수정(2002). 전문적 여가스포츠참여자의 여가경험.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오세숙, 오영미, 오경아(2012). 진지한 여가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6(1), 83-100.
- 이연주(2005).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로써의 한국 프로축구 서포터즈 문화. *한국체육학회지*, 44(2), 553-563.
- 이학식, 임지훈(2017). SPSS 24 매뉴얼: 통계분석 방법 및 해설. 집현재.
- 황선환, 이문진(2009). 진지한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관계: 스키어를 대상으로. *48(6)*. 393-402.
- Apostle, R.(1992). Curling for cash: The "professionalization" of a popular Canadian sport. *Culture*, 12(2), 17-28.

- Arai, S. M., & Pedlar, A. M.(1997). Building communities through leisure: citizen participation in a healthy community initiativ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2), 167-182.
- Baldwin, C. K., & Norris, P. A.(1999). Exploring the dimensions of serious leisure: “Love Me-Love My Dog”.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1(1), 1-17.
- Bryan, H. (1977). Leisure value systems and recreation specialization: The case of trout fisherm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9, 174-187.
- Csikszentmihalyi, M.(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The experience of play in work and games*. San Francisco: Jossey-Bass. / 이삼출 역(2003). 「몰입의 기술」. 서울: 더불어 책.
- Dumazedier, J. (1974). *Sociology of leisure*. New York: Elsevier.
- Gould, J., Moore, D., McGuire, F., & Stebbins, R. A. (2008). Development of the Serious Leisure Inventory and Mea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0, 47-68.
- Hair, J. F., Jr.,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m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milton-Smith, E.(1993). In the Australian bush: Some reflections on serious leisure. *World Leisure & Recreation*, 35(1), 10-13.
- Hastings, D. W., Kurth, S. B., Schloder, m., & Cyr, Darrell.(1995). Reasons for participating in serious leisure: Comparison of Canadian and U.S. masters swimmers. *International Review for Sociology of sport*, 30, 101-119.
- Kelly, J. R. (1996). *Leisure*. Needham Height, MA: Allyn and Bacon.
- Scott, D. (2012). Serious leisure and Recreation Specialization: An Uneasy Marriage. *Leisure Science*, 34, 366-371.
- Shen, X. S., & Yarnal, C. (2010). Blowing Open the Serious Leisure-Casual Leisure Dichotomy: What's In There?. *Leisure Sciences*, 32(2), 162-179.
- Siegenthaler, K. L., & O'Dell, I. (2003). Older Golfers: Serious Leisure and Successful Aging. *World Leisure Journal*, 45, 45-52.
- Stebbins, R. A.(1982a). serious leisure: A conceptual statement. *Pacific Sociological Review*. 25(2), 251-272.
- Stebbins, R. A.(1982b). Amateur and professional astronomers: A study of their interrelationships. *Urban Life*, 10, 433-454.
- Stebbins, R. A.(1992a). *Amateurs, Professionals, and Serious leisure*. Montreal, Quebec: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Stebbins, R. A.(1992b). Cost and Rewards in Barbershop Singing. *Leisure Studies*, 11(1), 123-133.
- Stebbins, R. A. (1997). Casual leisure: A conceptual statement. *Leisure Studies*, 16(1), 17-25.
- Stebbins, R. A. (2015). *Serious leisure: A Perspective for Our Time*. Montreal, Quebec: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Stebbins, R. A. (2013). *Serious Leisure and Individuality*. Montreal, Quebec: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Yoder, D. G.(1997). A Model for commodity intensive serious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4), 407-429.
- Yair, G.(1990). The commitment to long-distance running and level of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 213-227.